

검찰,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왜곡보도” vs “언론탄압”

‘尹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적용...“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사실 아냐” 기자 집도 대상...언론단체 등 “답 정해놓고 충성심 과시” 강력 반발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뤄진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뉴스타파와 JTBC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두 언론사의 보도가 불법적인 대선 개입 목적으로 왜곡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반면 뉴스타파와 언론단체는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선 반부패수사3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사무실 압수수색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와 봉지욱 전 JTBC 기자의 사무공간에 한정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뉴스타파 직원들은 오전 8시50분경 검찰이 압수수색 현장 집행을 시도하자 건물 출입구를 막고 구호를 외치며 대치했다. 검찰은 2시간20분 만에 건물 내부로 진입했고, 오후 3시44분까지 4시간30분 가량 내부 회의 자료 등을 확보했다.

JTBC의 경우 보도국 진입을 하지 않는 전제로 절차 논의를 거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다. 한상진·봉지욱 기자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 혐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적용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검찰은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인 윤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묘

어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인 9월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1억6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신씨가 허위 인터뷰를 녹취해 뉴스타파 측에 제공하고 한 기자, 대표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하는 등 보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직전 허위 보도를 해 여론 조작을 도모하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JTBC 소속이던 봉 기자의 지난해 2월21일 민간업자 남욱 씨의 2021년 11월 검찰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2011년 2월 조씨가 두 번째 대검 조사를 받으려 갔을 때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쳤고, 당시 주임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고 보도했다.

검찰은 봉 기자가 2021년 10월 조씨와 직접 만나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 등의 설명을 듣고도 이를 빠뜨린 채 커피를 타준 주임검사가 윤 대통령이라는 것처럼 보도한 것으로 본다. 봉 기자는 현재는 뉴스타파로 이직했다.

봉 기자는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조씨가)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는 대부분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우형의 인터뷰를 모든 걸 실어줘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반론을 충분히 못 실은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수사 무마 의혹)이 없어지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수사 기록을 모두 확인한 결과, 두 언론사가 제기한 ‘보조기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을 두고 뉴스타파와 언론단체는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여론조작’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윤석열 정권을 향한 충성심의 과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중구 뉴스타파를 찾은 검찰 관계자들이 뉴스타파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산 참모진 총선차출 국힘 리스트 받은尹 “얼마든지”

내달초 ‘총선 러시’ 본격화 전망

최측근들은 막판 투입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로부터 내년 총선에 출마할 만한 대통령실 참모들의 명단을 받아 검토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여당 지도부는 수석비서관급부터 행정관급까지 수십 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리스트에 담았으며, 윤 대통령은 이들을 차출해도 좋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총선에 출마시킬 사람들을 용산에서 당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의견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의견 교환 아니겠냐”라며 “머지않은 시기 (용산과 여당 사이에)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실 참모진 가운데 당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차출해도 좋다는 게 윤 대통령 입장”이라고 전했다.

여당의 용산발(發) 인재 영입이 벌써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이런 ‘이심전심’ 속에 대통령실 참모진은 ▲추석 연휴 직후 ▲국정감사 직후 ▲내년 1월 등 순차적으로 3차에 걸쳐 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먼저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 달 초부터 대통령실 행정관급을 중심으로 ‘총선 러시’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당 차출 요청과 별도로 자체 수요 조사를 통해 확인한 행정관급 출마 희망자만 30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체급이 더 높은 수석비서관·비서관급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 이후에 용산을 떠날 전망이다.

당무 감사와 공천을 개정을 둘러싼 여권 내 잡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불리 움

직이기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

물론 개인 인지도나 지역구 여론 등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들은 막판 투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은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할 경우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 10일부터 90일 전인 1월 11일까지만 시작하면 된다.

수석급은 이진복 정무·강승규 시민사회·김은혜 홍보수석 등의 차출이 거론된다.

주진우 법률·강명구 국정기획·강훈 국정홍보·전희경 정무1·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도 언제든지 차출될 수 있는 후보군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개편은 단계적 사직에 따른 순차 개편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총선 국면에도 국정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충원도 계속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석 직후 인위적인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두지는 않고 있다”며 “그때쯤 본인들이 판단해 출마 의사를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김기현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 정중히 요청”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건강이 악화한다고 한다. 어제 이 대표를 진단한 의료진도 단식을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 바 있다고 전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거대 야당의 대표가 정부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내년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하는 정기국회에서 단식을 계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듭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또 김 대표는 민주당이 ‘해병대 체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특검을 주장하는 데 대해 “해임·탄핵·특검, 이런 것이 거대 야당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대한민국의 안보 수장에 대해 발목잡기를 하려다가, 막상 국방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신임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자 명분도 없는 특검을 하자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흥기로 악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행안부 장관에 대해 현정사상 초유의 영터러 탄핵을 추진해 반년 가까이 행정을 마비시키는 바람에 수해 예방 안전 행정조차 못하게 가로막은 바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 대통령 지지율 37%...2주 사이 4%p 올라

NBS...홍범도 흉상 이전 반대 58%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사이 4%p 포인트(p) 오른 3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7%, ‘잘못하고 있다’는 54%로 집계됐다. 직전인 2주 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4%p 올랐고, 부정 평가는 5%p 내렸다.

윤 대통령이 가장 잘하고 있는 점으로는 ‘결단력 있음’이 1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8%), ‘일관성이 있고 신뢰가 감’ (7%) 순이었다. 가장 잘못하고 있는 점에는 ‘독단적이고 일

방적임’ (23%)이 가장 많이 꼽혔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한 평가에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55%, ‘올바른 방향’은 38%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26%, 정의당 3%,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35%를 각각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와 같았고, 민주당은 2%p 내렸다.

국방부의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과 관련해선 ‘반대한다’는 응답이 58%로, ‘찬성한다’ (26%)를 크게 앞섰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6.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

WORLD DRONE FESTA 2023 NAMWON, KOREA

2023. 10. 6(금) ~ 10. 9(월) 남원종합스포츠타운

흥이 넘치고 놀거리 가득한 제31회 흥부제

2023. 10. 7(토) ~ 10. 9(월) · 사랑의광장 일원

2023 남원 문화재야행

광한청허부, 달나라궁전으로 초대

10.7 토-10.9 월 18:00-23:00

광한루원 · 요천월궁광장일대

이부가 예술이야!